

新演劇 70周年紀念 地方巡廻 演劇講座

李眞淳 新演劇70년—그 反省的 회고

車凡錫 오늘의 韓國演劇

李根三 번역극 공연의 문제점

金正鈺 世界の 새로운 演劇潮流와 우리 演劇의 反省

大邱 1978. 9. 1. (李根三 金正鈺)

釜山 1978. 9. 2. (李根三 金正鈺)

全州 1978. 9. 1. (李眞淳 車凡錫)

光州 1978. 9. 2. (李眞淳 車凡錫)

社團 韓 國 演 劇 協 會
法人

번역극 공연의 문제점

李 根 三
< 劇作家 · 西江大教授 >

요즘 연극계를 번역극에 신들린 집안이라고 한다. 1년동안 각 극단에서 공연한 창작극은 전체 공연 작품의 20%에 불과하나. 그러나 大韓民國演劇祭가 없었더라면 그 비율은 더 심한 차이를 나타냈을 것이다.

창작극이 많지 않다는 비난에 일차적인 책임을 질 사람들은 물론 劇作家들일 것이다. 극단 관계자들을 매혹시키고 관객의 환영을 받을 만한 알찬 작품을 자주 쓰지 못하는 劇作家들은 당연히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나라의 演劇史를 훑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창작극이란 훨씬 나라나 어떤 천재적인 作家의 존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作家란 그 時代, 그 社會의 극계 전체의 종합적인 산물인 것이다.

英國 엘리자베스朝는 셰익스피어를 비롯, 주옥같은 수많은 劇作家들을 탄생케 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후 근 1백년동안 英國은 이렇다할 劇作家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 1백년이란 세월을 지나온 英國의 극계를 보면 劇作家가 나오지 못하게끔 제반 요인이 불리했던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戲曲文學의 역사가 짧고 따라서 그 전통도 없는 풍토에서 좋은 희곡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처럼 演劇熱이 왕성한 때에 창작극 공연단을 기다리다가는 그 의욕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公演術이며 劇作術이 앞선 외국의 작품을 공연하여 관객들에게 외국의 새것을 소개하고, 연극인들에게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번역극은 자주 공연을 해야 한다.

번역극 공연을 좋은 창작극이 나올 때까지의 미봉책으로 생각해서도 안된다. 한 특수한 사회에서의 특수한 문제를 다룬 劇이 전혀 이질적인 문화와 권

228

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란 ~~힘~~
다.

그러나 웅대한 외국의 작품들은 인간이 느끼고 파악할 수 있는 普遍性이 있기 때문에 생소한 것은 아니다. 희랍의 古典劇이나 셰익스피어, 또는 몰리에르의 劇은 우리의 時代 공간과 거리가 있지만, 그것은 곧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를 다룬 普遍的 主題性과 人物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劇을 공연하면 곧 主體性이 희박한 행위라는 단정하는 어리석음은 지버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劇의 공연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연극을 살찌게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外國의 연극계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작품의 공연은 그것이 단순한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극 속에 융화되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無批判的인 외국 작품의 채택이다. 대중의 취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다. 특히 리트니, 베스트 셀러리는 레텔이 붙은 것을 찾는다.

이러한 대중의 취향을 알아, 외국에서 갖 공연한 것과 또는 새롭다는 인상을 주는 處를 무조건 번역, 우리 관객에게 내놓고자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 내용이며 사진, 또는 인물이 우리 하고는 거리가 있어 공연을 보아도 혼돈만을 가져오는 외국의 작품들이 범람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이다.

심지어는 새롭고 문제가 있다는 작품의 번역을 맡은 사람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誤譯이 많음은 물론, 도저히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번역자가 이러니, 이것을 공연하는 演出家나 演技者는 더욱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의 작품을 보는 관객들은 체면상 모른다는 말을 못한다. 敎養에 대한 체면때문이다.

특히 혼돈을 일으키는 행위는 일부 명성을 추구는 무책임한 평론가들의 글이다. 몇번 읽어 보아도 알 수 없는 글치로 이런 작품의 공연을 극찬한다.

이리하여 관객들은 고도의 知的 작품은 難解하지

만 모두가 좋다니 모르면서도 보아야 한다고 체념한다. 오늘날의 우리의 번역극 공연의 문제는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이다.

외국 작품을 공연할 때는 演技者의 聲이 극적볼링의 양상을 띤다. 외국인들의 말이나 외국인의 聲을 따른다는 꼭 단순한 생각에서인지는 몰라도 듣기에 이치롭 역겨운 발성은 없다. 연극의 여러 목적 중에는 한 사회의 언어를 순화하고 좋은 발성을 내어 民族言語의 표준을 지향한다는 점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최근의 번역극 공연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어색한 발성은 우리에게서 백해무익한 것이다.

또한 劇中에 나오는 인물들의 일상생활 또는 행동이 무연하다는 맹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帝政러시아시대의 가정애 조니 워커 같은 양주병이 즐비하고 코냑을 맥주마시듯 단숨에 삼켜 버린다. 美國 남부의 가정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韓國의 음악이 나온다. 우리 관객에게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반 이탈리아의 실험극(뱀) 공연에 배경음악으로 느닷없는 우리의 감상적 대중가요 「비나리는 그 모험」이 튀어나와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감각 내지는 무식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곧 외국 작품을 공연할 때의 극계의 무성의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韓國의 연극은 아직도 寫實主義 연극의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현재 西歐에서 실험되고 있는 갖가지 명칭의 연극형식은 오랜 세월이 걸쳐 거의 生理化된 사실주의 연극을 토대로 한 실험의 것이다. 이러한 유의 작품을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그것이 새롭고, 그 사회에서 히트하였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한다는 것은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다.

외국의 작품을 공연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배우들은, 절손한 태도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공연을 통해 얻은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할 때 그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새것의 노예가 되는 대신, 이미 정평이 있는 외

국의 古典을 자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줄로 안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인간 공통의 문제
가 있으며 인류의 역사가 内在함은 물론 특수한
시대의 산물인 배울만한 형식도 있기 때문이다.